

코로나19와 가정폭력*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김효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폭력연구본부 부연구위원

1. 들어가며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 주요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팬데믹과 가정폭력, 젠더 기반 여성폭력의 연관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유엔인구기금(UNFPA)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건강과 사회경제적인 도전을 야기하는 ‘금세기 가장 커다란 세계적 공중보건 위기(the largest global public health crisis in a century)’로 정의하고, 팬데믹 기간동안 여성에 대한 폭력과 여성의 건강 및 재생산 권리에 의도치 않은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UNFPA, 2020). 유엔여성기구(UN Women),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도 팬데믹의 발생과 지속이 가구 내 긴장 수준을 높이고 폭력이 발생하는 공간에 머무르는 시간을 증가시켜, 여성들이 폭력에 노출될 위험을 높이고 전체적인 성평등

수준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UN Women, 2020; WHO, 2020). 여기에는 재난, 재해 등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가정폭력 등 젠더 기반 폭력이 대체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왔던 역사적 사실이 존재한다. 반면 한국에서는 팬데믹 이후 가정폭력이 증가하였다는 실증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면서 팬데믹과 가정폭력의 연관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글은 사회의 젠더 질서와 규범 속에서 코로나19 팬데믹과 가정폭력, 젠더 기반 여성폭력의 연관성이 구성되는 방식을 국가별 실증자료와 재난과 젠더를 설명하는 이론적 논의에 기반하여 살펴보고, 코로나19 이후 가정폭력 연구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 이 글은 저자의 논문 “코로나19와 가정폭력: 팬데믹의 젠더화된 효과”를 바탕으로 관련 자료를 추가하고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재구성한 것임을 밝힙니다.

2. 재난과 젠더

실증적으로 대형 재난 시기 젠더 기반 여성폭력은 대체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특히 가정폭력, 성폭력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2005년 천문학적인 재산 피해와 2,500명 이상의 실종자 및 사망자를 발생시킨 미국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 당시 주요 피해지역 거주민들이 경험한 파트너로부터의 신체적 폭력은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고(98%), 정서적인 폭력을 경험한 경우도 35% 이상 높았다(Schumacher et al., 2010). 30만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2010 아이티 대지진 이후에도 친밀한 관계에서의 신체적, 성적 폭력 발생의 가능성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Weitzman & Behrman, 2016). 재난과 가정폭력 증가의 연관성은 질적 연구의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173명의 사망자와 수천 명의 대규모 이주를 낳았던 2009년 호주 빅토리아주의 대규모 덩불 화재 이후 젠더폭력 경험을 살펴보는 연구에서, 인터뷰에 응답한 여성들은 모두 재난 이후 지역사회 내 폭력과 가정폭력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다(Parkinson & Zara, 2013: 30). 1만 8천여 명의 사망자 및 실종자가 발생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대피소에 거주하던 다수의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10년만에 밝혀지면서 사회적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서울신문, 2021.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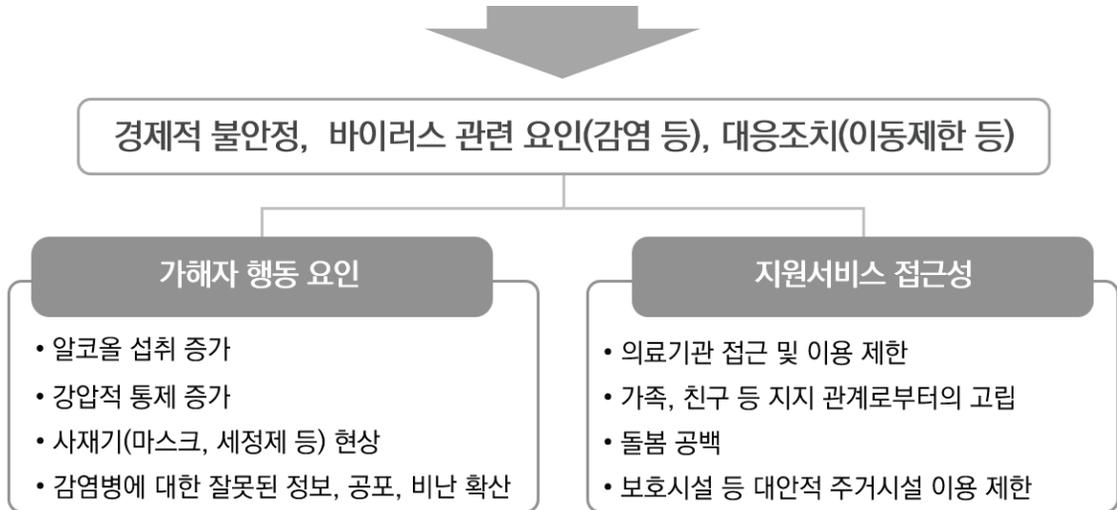
감염병 관련 재난 상황에서는 감염병에 걸릴 위험과 젠더기반폭력을 경험할 위험이 중첩된다. 2018년 에볼라 바이러스 발생이 선포된 콩고 북부 키부 지역의 여성과 여아들은 감염병에 걸릴 위험뿐 아니라 폭력 위험에도 더 많이 노출되었다(IRC, 2019). 여성을 돌봄 노동의 일차적 책임자로 여기는 사회적 규범은 감염병에 걸린 환자를 돌보고 관

리할 책임을 여성들에게 부과하는데, 이는 여성들의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생활에 필요한 물을 공급할 책임 역시 여성들에게 부여되었고, 매일 물을 길어오기 위해 먼 길을 왕복하는 과정에서 강간 등 성폭력을 당할 위험에 노출되었다. 키부의 저개발된 지역적 조건은 여성들이 주거지와 음식을 구하기 위해 성적 착취나 학대를 견디게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는 저개발되어 있는 국가적, 지역적 상황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볼라 바이러스의 발생과 확산 이후 여성들을 감염병과 폭력에 취약하게 만드는 사회구조의 중심에는 여성을 돌봄과 가사노동의 책임자로 여기는 젠더 규범과 재난 이전에도 경제적으로 취약했던 여성들의 위치가 핵심적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이는 개발국가에서 발생한 재난의 젠더화된 양상과 궤를 같이하는 지점이다.

유럽성평등연구소(EIGE)는 코로나19와 연관된 과거의 팬데믹 및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요인으로 경제적 요인, 감염병적 요인, 대응조치로 인한 요인을 제시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경제적 불안정성과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성, 그리고 이동 제한 등 사회적 대응조치를 야기하는데, 이는 가해자의 행동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 접근성에 모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결과 피해자와 그 자녀들의 취약성과 공포는 증가하고, 가해자를 떠나기 어려워지고, 가정과 자녀에 대한 책무는 증가하고, 고립은 강화된다. 또한 이와 연관된 결과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스트레스 수준의 증가, 폭력 빈도(frequency)의 증가, 폭력 정도(severity)의 심화, 여성 살해(femicide) 등의 현상이 야기된다고 설명하였다(EIGE, 2021).

된다. 가정폭력을 개인 여성과 남성 사이에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의 효과



자료: EIGE(2021). The Covid-19 pandemic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against women in the EU, p.12, Figure 1.
<https://eige.europa.eu/publications/covid-19-pandemic-and-intimate-partner-violence-against-women-eu>, (검색일: 2022.3.20.)

[그림 1] 코로나19 시기 젠더 기반 여성폭력 관련 위험요인

3. 코로나19의 젠더화된 효과

1) 위계화된 위기, 사소화되는 여성폭력

재난이라는 사회적 위기는 가정폭력을 사소한 일, 개인화된 사건으로 여기는 오래된 통념과 위계화된 위기 대응 인식을 강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데 일조한다. 재난이 심각할수록 재난으로 인한 고통은 커지게 되고, 따라서 재난으로 파괴되고 중단된 삶의 터전을 재건하여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은 한층 더 중요한 과제가 된다. 성평등, 민주주의와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의 실현은 최우선적 과제인 재난 복구의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 문제는 사소한 것으로 여겨지게

개인적인 일, 여성의 잘못으로 초래된 일, 사소한 일, 외부의 개입이 가능하지 않은 가족 내의 일로 간주하려는 시도는 오랫동안 있어 왔고, 비판받아 왔다. 재난이 불러온 파괴적 상황과, 집단적 공포 및 트라우마는 이러한 오래된 시도를 용이하게 하고, 재난 상황에서 발생한 폭력을 양해하도록 여성들에게 요구하거나, 심지어 여성들의 잘못으로 인해 폭력이 발생한 것처럼 여겨지게 한다. 예를 들어 2009년 호주에서 발생한 덩불화재 이후 재난의 복구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들은 대부분 재난으로 인해 정당화되었다. 화재로 인해 경제적 기반을 상실한 남성들에 대한 동정과 연민 속에서 이들에 의해 발생한 폭력은 젠더 기반 폭력이 아닌, 재난으로 인한 상실감, 절망, 우울로 인한 우발적이고 일탈적인 사

건으로 여겨졌고, 재난의 피해자인 폭력 가해자를 이해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Parkinson & Zara, 2013: 31). 재난으로 인한 위기가 심각할수록 빠른 피해복구는 최우선적 과제로 설정된다. 비정상적, 일탈적 행동은 위기가 지나가고 재난 상황이 복구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인식되어 양해받을 수 있는 사건으로 취급되며, 여성에 대한 폭력 역시 그러한 사건들 중 하나로 인식된다.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재난 피해를 해결하는 주체가 모두 이러한 인식을 가진 상황에서 폭력 발생은 사소화되고 정당화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여성들은 비난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2) 재난으로 인한 남성성의 위기와 하이퍼 남성성

코로나19는 재난의 근원지와 전파 환경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높은 불확실성과 국경을 넘나드는 감염병의 특성을 동시에 가진다. 집단감염과 무증상 확진 사례,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은 언제 어디서 바이러스에 감염될지 모른다는 집단적 공포를 낳았고, 영업시간 단축, 자가 격리 등 확진 이후 진행되는 필수적 조치들은 감염 이후 입게 될 사회적, 개인적인 손실에 대한 우려를 불러왔다. 코로나19가 가져올 손실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 중 하나는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수출입 규제, 출입국 제한 등 전례 없는 국가적 조치는 지난 30년간 진행되어 온 국제화, 세계화의 흐름에 충격파를 던지면서 세계질서의 재편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실업, 고용 불안, 경기 악화의 경험과 이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공포는 가족의 책임자, 경제적 부양자

로서 남성성의 확립과 충돌하는 것이다. 재난이 야기한 남성성의 위기와 관련하여, 오스틴(Austin, D. W.)은 재난으로 인한 위기 상황이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회복하려는 시도를 촉진시킨다고 보고, 재난 시기 폭력을 수단으로 하여 재구성된 남성성을 하이퍼 남성성(hyper-masculinity)으로 정의한다(Austin, 2016). 재난으로 인한 상실과 혼란은 기존의 사회 질서에 내재된 젠더 질서를 일시적으로 해체하여 남성성의 주변화를 초래하는데, 이때 일부 남성들은 재난으로 인한 남성성과 지배력의 상실을 여성에 대한 폭력 행사로 상쇄시키려 시도한다. 재난으로 인해 주변화된 남성성을 폭력을 통해 확인하려는 시도는 재난 시기 또는 재난의 복구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을 우발적인 사건으로, 양해해야만 하는 일로 간주하는 사회적 맥락에서 보다 용이해지고, 이를 통해 주변화된 남성성은 재난 시기 하이퍼 남성성으로 대체된다(Austin, 2016: 50-52). 이러한 오스틴의 설명은 코로나19시기 가정폭력, 여성에 대한 폭력이 증가하는 맥락에 대한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조치들이 시행되는 동안 개인의 이동권은 제한되고, 건강권과 경제권에 대한 통제력은 축소되고, 감염에 대한 집단적 공포가 형성되었다. 팬데믹으로 인한 주체됨의 상실과 기존의 남성성을 뒷받침하던 사회 질서에 야기된 혼란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위기를 가져오고, 이는 폭력을 수단으로 남성성 획득을 시도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재난으로 인한 남성성의 위기와 하이퍼 남성성의 등장은 폭력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발현될 수 있다. 남성과 재난에 관한 연구들에서 재난 이후 음주, 약물 사용, 스포츠 참여 등 남성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재난으로 인한 남성들의 상실감과 고통을 사회적으로 인정 가능한 남성적 방식을 통해 일시적

으로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kinson & Zara, 2013; Zara et al., 2016). 재난 앞에서 경험한 존재의 무력함은 모두에게 깊은 고통이지만, 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남성성의 가치와 충돌하는 것이다. 남성들은 재난으로 고통받으면서도 이를 인정함으로써 이상적 남성성을 포기할 수도 없는 “이중의 위험(double jeopardy)”에 처하게 된다(Zara et al., 2016: 46).

3) 재난 극복의 이익과 긍정적 효과의 젠더 불균등성

남성성의 위기는 자주 사회적 위기로 치환된다. 남성성의 위기를 사회 일반의 위기로 인식하는 것은 재난 회복을 위한 실천들이 젠더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재난을 극복하는 데 따른 이익과 긍정적 효과 역시 젠더에 따라 불균등하게 배분된다는 사실을 감춘다. 일례로 재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재난 복구 체계의 구상, 운영, 추진에 남성들이 더 많이 참여하는 것을 들 수 있다(Luft, 2016). 주요 위원회나 모임의 일원에 여성이 참여한 경우일 지라도, 여성들은 돌봄의 책임으로 인해 자주 중요한 위치에서 제외되고, 밤늦은 시간에 개최되는 회의에 참석할 기회를 놓치게 되며, 그 결과 재난 복구의 우선순위에서 가정폭력, 젠더 기반 여성폭력 이슈가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한다(Luft, 2016:38-41). 즉 젠더와 재난의 맥락에서, 재난의 부정적인 효과 뿐 아니라 재난 이후의 복구 과정에서 획득될 수 있는 권력과 이익 역시 젠더 관계에 따라 불평등하게 배분되는 것이다.

4. 나가며

이상으로 코로나19 시기 가정폭력 이슈와 관련된 기존 논의를 젠더와 재난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각국의 실증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사회구조와 개인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 사회적 요인이자 전세계적인 위기로 평가되는 코로나19는 가정폭력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폭력을 드러내어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이 극히 낮은 젠더 기반 여성폭력의 특성상 실제 코로나19 시기 가정폭력의 변화 양상을 정확히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가정폭력 신고 건수, 상담 건수 등 폭력의 발생 양상을 파악하는데 사용되어 왔던 기존의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은 가정폭력의 연속적, 중층적 양상을 포착하지 못하고 일회적 사건으로 바라보는 관점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팬데믹 시기 가정폭력 변화 추이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데 여러 한계를 노정한다. 또한 2010년 이후 피해자 지원체계 및 운영방식에 대한 변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팬데믹이 가정폭력에 미친 영향력과 피해자 지원방식 및 체계 전환의 필요성으로 인한 영향력을 구분하기 어려운 지점이 존재한다. 코로나19와 가정폭력 변화 양상을 맥락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팬데믹 기간 동안 가정폭력 발생률이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과 수단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지원 결과가 피해자의 안전과 자립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팬데믹이 야기한 가정폭력 위험 요소

들의 효과는 강압적 통제, 정서적 학대 등 현재의 방식으로서는 측정되기 어려운 가정폭력의 양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신체적, 일회성 사건으로 가정폭력을 해석하는 관점의 전환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

Austin, D. W.(2016). Hyper-Masculinity and Disaster: The reconstruction of hegemonic masculinity in the wake of calamity. In E. Enarson & B. Pease(Eds.), Men, Masculinities and Disaster (pp.45-55).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EIGE(2021). The Covid 19 pandemic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against women in the EU. <https://eige.europa.eu/publications/covid-19-pandemic-and-intimate-partner-violence-against-women-eu>, (접속일: 2022.3.20.)

IRC(2019). Everything on her shoulders: Rapid assessment on gender and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in the Ebola outbreak in Beni, DRC. <https://www.rescue.org/report/everything-her-shoulders-rapid-assessment-gender-and-violence-against-women-and-girls-ebola> (접속일: 2022.3.20.)

Luft, R. E.(2016). Men and masculinities in the social movement for a just reconstruction after Hurricane Katrina. In E. Enarson & B. Pease(Eds.), Men, Masculinities and Disaster(pp.34-44).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arkinson, D., & Zara, C.(2013). The hidden disaster: Domestic violence in the aftermath of natural disaster. Australian Journal of Emergency Management, 28(2), 28-35.

Schumacher, J. A., Coffey, S. F., Norris, F. H., Tracy, M., Clements, K., & Galea, S.(2010).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Hurricane Katrina: Predictors and associated mental health outcomes. Violence and Victims, 25(5), 588-603.

UN Women(2020). COVID-19 and end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https://www.unwomen.org/en/digital-library/publications/2020/04/issue-brief-covid-19-and-ending-violence-against-women-and-girls> (접속일: 2022.3.20.)

UNFPA(2020). COVID-19: A Gender Lens: Protecting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and promoting gender equality. <https://www.unfpa.org/resources/covid-19-gender-lens#> (접속일: 2022.3.20.)

Weitzman, A. & Behrman, J. A.(2016). Disaster, Disruption to Family Life,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The Case of the 2010. Sociological Science, 3, 167-189.

WHO(2020). Joint Leaders' statement - Violence against children: A hidden crisis of the COVID-19 pandemic. https://www.who.int/docs/default-source/coronaviruse/ending-violence-in-a-time-of-covid-19---join-statement.pdf?sfvrsn=1cbd99f0_2 (접속일: 2022.3.20.)

Zara, C., Parkinson, D., Duncan, A., & Joyce, K.(2016). Men and disaster: Men's experiences of the black Saturday bushfires and the aftermath. Australian Journal of Emergency Management, 31(3), 40-48.

김효정(2020). “코로나19와 가정폭력: 팬데믹의 젠더화된 효과”. 여성연구 107, 5-29.

서울신문(2021.3.11.). 동일본대지진 대피소서 매일 ‘성폭행’ 당했습니다” [이슈픽].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311500089> (접속일: 2022.3.20.)

국제리뷰

- **2021 세대평등포럼(Generation Equality Forum) 참관기(1)**
장은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혜승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윤지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국제협력센터장
박윤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 **‘무역과 성평등(Trade and Gender)’, 무엇이 쟁점(issue)인가?**
고보민 | 가톨릭대 국제통상학부 조교수